

대행 스님

인간으로서 좀 더 진실하게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호에 이어서

질문자1(여) 스님, 반갑습니다. 제가 처음에 초발심이라 아무것도 모르고 산이 좀 깊은 곳에 가서 삼천배라는 것을 해 봤는데, 열 시간 동안 삼천배를 하고 딱 끝내고 나니까 왜 그렇게 울음이 나는지요.

큰스님 삼천배를 하셨다는데 그 삼천배는 한 사이가 없죠. 그런데 마음으로 '내가 여기 가서 삼천배나 해 보면 어떨까?' 하는 그 생각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극한 그 마음 때문이지 몸뚱이로 절을 했다고 해서가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몸으로 삼천배를 해야만 된다 이런다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서 뛰고 뛰면서 생각하는 이런 바쁜 세상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은 시공이 없는 마음이며 체가 없는 마음이며 자유스러운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체가 없는 건데 만약에 일배가 삼천배고 삼천배가 일배라면 어떻겠습니까? 모든 것을 둥글려서 한마음으로서 일배를 지극하게 했다면 삼만배 한 것보다도 큽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전부터 도인들이 "왜 무거운데 염주를 목에다 지고 다니느냐? 목탁을 들고 다니느냐? 가죽 속에 다 넣어 가지고 다니면 가벼울 텐데." 이런 말을 했죠.

그러니 마음이 바깥으로 끄달리지 마시라 이겁니다. 내가 절을 하든 법당에 가든 부처님의 형상이 나와 둘이 아닙니다. 모두가 둘이 아닙니다. 마음도 둘이 아니요 생명도 둘이 아니요 모두가 둘이 아닌 까닭에, 둥굴려서 부처님 한 군데로 대고 절을 하든지 그 부처님을 끌어다 내 속에 놓고 그냥 하든지, 둘로는 보지 마세요. 만 불의 부처님이 있더라도 그 만 불을 휘어잡아서 전체를 한 주먹에 넣고 뭉쳐 거기에 넣고선 절하라는 겁니다. 주인공 안에 다 들어 있으니까 말입니다. 삼정례를 올리고 칠정례를 올리고 팔정례를 올려도 그것이 진정한 일배만은 못하다 이겁니다. 진실한 일배!

질문자2(남) 저는 스님을 뵌 적은 없습니다마는 책을 통해서 접견을 했는데요. '모든 것을 주인공한테 놓아라' 이런 걸 강조를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나쁜 것은 놓으려고 노력을 하고 좋은 것은 거기 자꾸 끄달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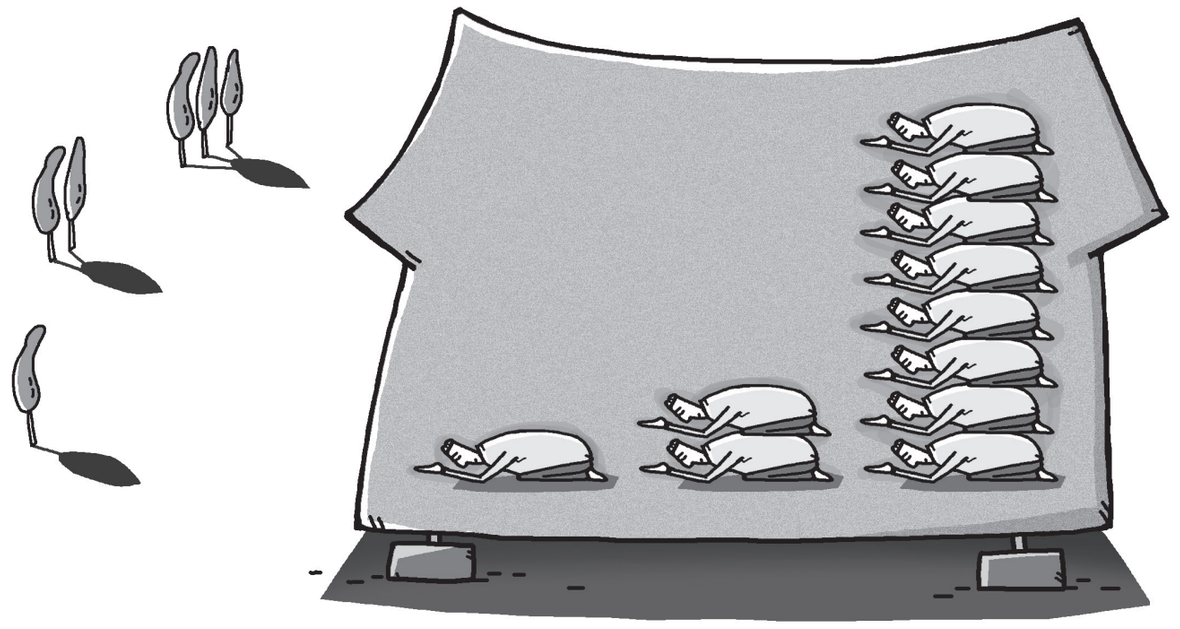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큰스님 그래서 예전에 부처님께서 말입니다, "좋은 것도 부처님 법이 아니요 언짢은 것도 부처님 법이 아니니라." 그래서 "그럼 뭐가 부처님 법입니까?" 하니까 "이리 오너라, 내가 가르쳐 줄 테니." 그래서 가니까 말입니다, 주장자로다가 그냥 골통을 치니까 "아이구, 아이구" 하거든요. 그래서 "이놈아, 누가 '아이구' 하느냐?" 하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분이 그 한생각을 잘하신다면 그것이 바로 법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 행입니다. 우리가 움죽거리면 행 아닙니까? 생각을 하면 보살이고 생각을 안 하면 부처고 말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어렵게 하시지 말고, 내가 아까 말씀드렸죠? 잘되는 거는 '내 주인공, 참 감사하구나!' 하는 마음을 갖는 게 놓는 겁니다. 또 안되는 거는 '아! 거기서 나온 거니까 거기서 해결하겠지. 거기서밖엔 해결 못 해.'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바로 그게 놓는 겁니다. 놓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거기다 놔야지 어떡합니까, 네?

나로 인해서 세상이 벌어졌고 나로 인해서 고가 벌어지고 나로 인해서 부처님이 있는 줄도 알고 우주 천하가 있는 줄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부터 잘못된 거든 잘한 거든 모두 내 탓으로만 돌린다면, 원망할 게 없고 증오할 게 없고 밉게 보는 게 없고, 더욱 이쁘게 볼 것도 없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오늘부터 편안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돈도 연방 따라오구요.

질문자2(남) 잘 알겠습니다.

큰스님 그럼 함이 없이 말후구 질문을 하실 분 있으시면 또 나오시죠. 허허허. 모든 것을 한데 합친…, 옛날에도 이런 시가 있었죠.

부처는 없기에 온 것이 없어서
흘러 도는 물에 우뚝 솟은 연꽃
연꽃의 향기뿐이로세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우리가 그대로 옛날의 시 한 구를 읽든 지금 한 구절을 짓든 그것이 전부 부처님 말씀입니다.

질문자3(여) 영가 천도에 대해서요, 저는 법을 잘 모르는데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얘기로는 해마다 조상 천도를 해야 되고, 그런 행사를 각 사찰에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젓번에 백중 때에 여기 와서 보니까 '아무개 성씨의 일체 조상' 그러고 그 기도를 접수하더라구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일체 조상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많은 성씨들이 거기 다 같이 결합해서 오늘의 내가 있다고 생각했을 적에 어느 조상이든지 내 조상이 아님이 없다 하는 데 공감을 가졌습니다.

큰스님 아유! 참, 도인이 나셨네요, 또.

질문자3(여) 죄송합니다.

큰스님 아니에요. 정말 그런 생각 하시기가 어렵죠.

질문자3(여) 그래서 저는 천도를 부탁하고 제가 다니던 사찰 도반에게 "나는 이번에 큰스님한테 조상 천도를 부탁드렸는데 틀림없이 천도가 될 거라고 확신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왜 그런 믿음을 갖느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는 바로는 법력이 크신 분은 그 근원을 찾아서 천도를 하시기 때문에, 스님이시라면 완전히 천도를 해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랬더니 "그럼 당신은 다음 해부터는 조상 천도를 안 할 거냐?"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한 번 천도된 영혼이라면 다시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냐. 이제부터는 일체의 유주 무주 고혼을 위한 천도의 방법은 택하겠지만 내 조상을 위해서 하기보다, 부모나 형제 친척이 죽기 전에는 거기에 얽매이지는 않을 거다." 그런 얘길 했거든요. 그랬더니 저 보고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제가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큰스님 그거는 보살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참 생각 잘하셨습니다. 틀렸다는 사람은 자기 소견이지 보살의 소견이 아닙니다. 그러니 지금 생각도 천차만별 아닙니까? 그러니 전부 부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저 모두 부처가 될 수 있는데도, 부처님이 다 건져 놓으셨는데도, 여러분이 벌써 인간이 됐으니까 99% 부처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생각 때문에 모두 중생인 것입니다. 아까 '일체 유주 무주' 라고 그랬죠? 그러면 일체 조상과 부처의 조상, 자기 전생의 조상도 전부 일체입니다. 유주 무주를 말할 건덕지도 없죠.

그러니 만약에 떡 한 그릇 밥 한 그릇 물 한 그릇 놓고 내가 밥을 먹다가 천도를 시켜도 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은 분들은 그렇게 호탕하게 "얼씨구절씨구 좋을씨구!" 이러는 겁니다, 하하하. 이, 말을 해도 함이 없이 하게 되고 그냥 그대로 말을 하면 법이 되고 그대로 움죽거리면 행이 되니 너무나 좋은 겁니다.

그리고 요 알뜰살뜰한 말, 내가 끝으로 한마디 해 드리겠는데, 지금 보살님이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여러분의 생각이 그러시다면…, 이렇습니다. 절에서 상을 크게 차려 놨습니다. 차려 놨는데, 고여서 놨죠? 그런데 먼저 스님네들이 음식들을 그렇게 고여 놓고

☞ 22면으로 계속

